

국민에게 신뢰받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 도 자 료	
한국신용정보원		보도일시	5월 25일 수요일(07:30) 부터
작 성 일	2016년 5월 24일	작성기관	한국신용정보원
담당부서	정보분석부 신용정보부 기술정보부 보험정보부	이동렬 부장(3705-5866) 심현섭 부장(3705-5910) 윤점열 부장(3705-5932) 신원섭 부장(3705-5851)	이재근 팀장(3705-5867) 박경옥 팀장(3705-5911) 유형우 팀장(3705-5933) 김진섭 팀장(3705-5852)

제목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걸음 내딛다 !

- “한국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본격 추진

◇ 한국신용정보원(원장 민성기)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新 금융시장 창출을 위하여 빅데이터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실행에 나선다.

1. 추진 배경

□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6.1.1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용정보원)은

○ 업계 빅데이터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 업무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장의 의견과 활용 수요를 파악함

* 빅데이터 실무자 수요조사 회의(1.27/28, 27개사), 빅데이터 활성화 현장 간담회(2.22, 금융위, 금융보안원 및 12개사), 회사별 개별 인터뷰(1월~3월, 7개사), 보유 정보 및 업무 설명회(3.22, 23개사)

□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여 본격 업무에 착수함

2. 추진 방향

□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전체 금융업권의 신용정보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활성화

① 그간 업권별로 분산 관리되던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가 신용정보원으로 최초 집중됨에 따라 통합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

② 신용정보원의 출범을 통해 정보분석 기능이 제고*됨에 따라 기존에 집중되던 신용정보에 대한 분석·활용을 강화

* 신용정보원 내 정보분석부를 신설하고 전문 분석인력을 확충하여 분석기능 강화

③ 튼튼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 新 금융시장 창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

신용정보 집중 확대에 따른
통합분석 제공

1. 업권간 연계분석으로 리스크 평가모형 정교화
2. 통합 실손계약정보의 다양한 활용
3. 본인 보험보장내역 한눈에 확인, '보험다보여'
4. 보험정보 통합으로 '보험사기다잡아'



기존 신용정보의
분석 및 활용 강화

1. 금융소비자 특성 분석으로 新금융서비스 활성화 지원
2. DSR 구축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지원
3. 기술·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기반의 대출 활성화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1. 최고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운영
2. 비식별 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 지원
3. 안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



3. 분야별 추진 계획

1. 신용정보 집중 확대에 따른 통합분석 제공

- ① **(업권간 연계분석으로 리스크 평가모형 정교화)** 대출·보험 가입 및 해지간 연관관계, 보험가입자 대출성향 등 은행·보험 연계분석

- 동 결과를 신용리스크 평가 모형에 반영하여 모형 정교화



※ 종합적 신용거래 정보 활용 적용례(p.9)

- 추진시기
- 대출과 보험 가입·해지간 연관관계, 보험가입자 대출성향 분석(‘16년7월)
 - 방카슈랑스 가입특성 분석(‘16년12월)

- ② **(통합 실손계약정보의 다양한 활용)** 생·손보험회, 보험개발원에 분산되었던 실손의료보험 정보를 통합·분석하여 다방면에 활용

- 실손의료보험 가입·지급 통계, 정액형보험과의 연계분석 등의 결과를 신상품 개발, 경영전략 수립, 법·제도 개선 등에 활용



※ 실손의료보험 가입 통계 분석 적용례(p.10)

- 추진시기
- 실손의료보험 가입통계(‘16년7월) 및 관련 지표 산출(‘16년12월)
 - 수요를 반영한 정기자료 제공 시행(‘17년~)

- ③ **(본인 보험보장내역 한눈에 확인, “보험다보여”)**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 및 분석결과 제공 시스템 구축

- 유사 연령대 보장금액 대비 과부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합리적인 보험보장 설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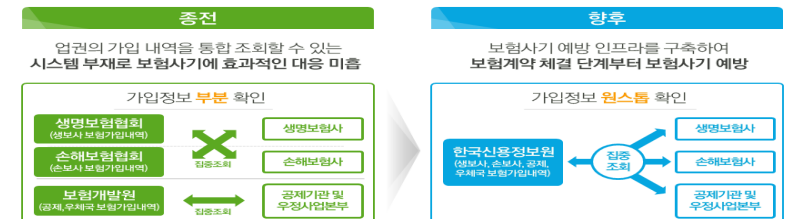


※ ‘보험다보여’ 서비스 적용례(p.12)

- 추진시기
- 보험보장내용 일괄조회 시스템을 구축(‘16년12월)
 -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 일괄조회 서비스 제공(‘17년 상반기 중)

- ④ **(보험정보 통합으로 “보험사기다잡아”)** 민영보험사와 공제기관의 가입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분석 범위 확대

- 통계 분석 고도화, 비정형분석 시스템 구축 등 보험사기 예측 모델 개발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 및 대응 능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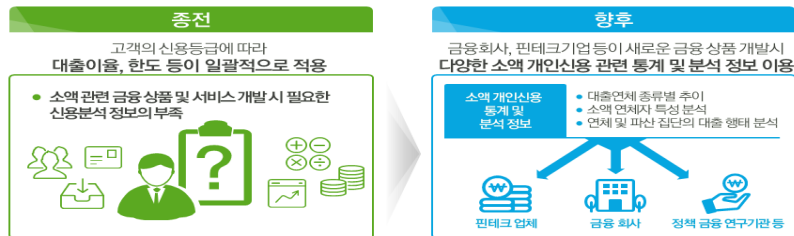
※ ‘보험사기다잡아’ 구축 적용례(p.13, p14, p15)

- 추진시기
- 보험회사용 보험가입내역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16년12월)
 - 통계 분석 시스템 구축(‘17년 중)
 - 비정형 분석 시스템 구축(‘18년 중)

II. 기존 신용정보의 분석 및 활용 강화

- ① **(금융소비자 특성 분석으로 新금융서비스 활성화 지원)** 소액 관련 개인신용 현황 등 금융소비자 특성 분석을 통해 핀테크 기업 등의 신사업 개척, 신상품 개발 등 지원

- 대출연체 종류별 추이, 소액 연체자 특성, 연체 및 파산 집단의 대출 행태 등을 단계적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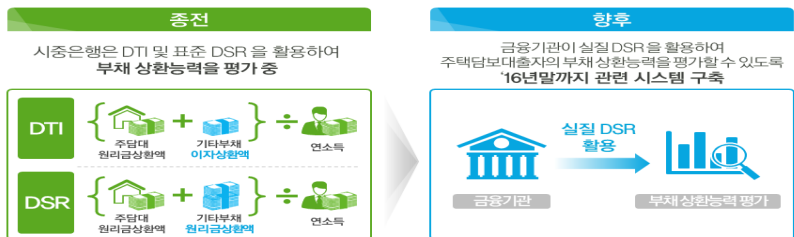


※ 소액 관련 개인신용 특성 분석 적용례(p.17)

- 추진시기
- 대출·연체 종류별 추이 및 소액 연체자 특성분석(~'16년7월)
- 연체 및 파산집단의 대출행태 분석(~'16년12월)

- ② **(DSR 구축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지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정보 집중 및 관리로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를 지원

- 표준·실질 DSR 산정을 위하여 대출 만기, 대출금리, 상환방식, 거치기간 등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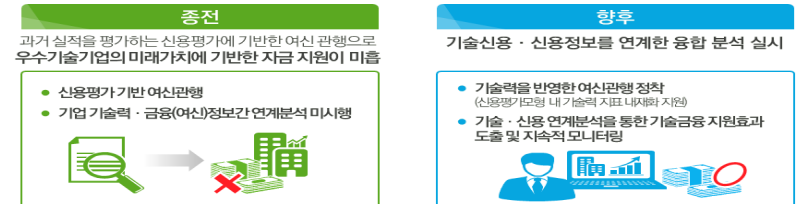


※ DSR 산출·적용례(p.18)

- 추진시기
- DSR 관련 정보 구축(안)을 마련 및 금융기관 협의(~'16년7월)
- 전산개발·시스템 구축(~'16년12월) 및 DSR 정보 제공('17년~)

- ③ **(기술·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기반의 대출 활성화)** 기술·신용정보 연계 분석을 통한 기술금융 지원 효과 분석 실시

- 기술금융 효과 분석 고도화를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시 기술력을 반영한 은행의 대출 패러다임 변화 유도



※ 기술금융 현황 및 효과 분석 적용례(p.19)

- 추진시기
- 기술신용대출 현황 분석, 기술 및 신용정보 연계 분석(~'16년12월)
- 기술금융 투입에 따른 기술사업화 촉진효과 심화분석('17년~)

III.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 ① **(최고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운영)** 빅데이터 정보에 대해 최고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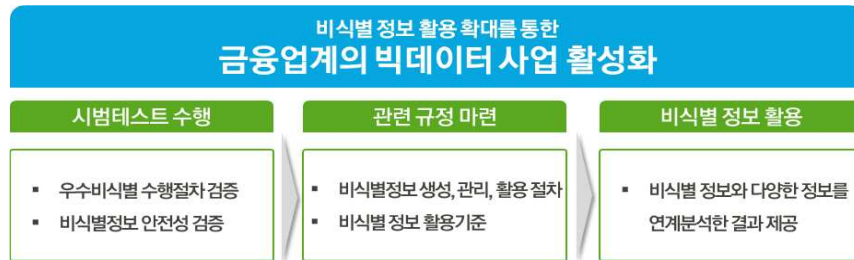
- 3중 보안관제 실시, 별도의 빅데이터 분석용 DB 및 전용단말기 구축, 분석업무 모니터링, 정기적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보완·개선, 정보보호 교육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정보보호체계 구축



- 추진시기
- 통합컴플라이언스 진단(~'16년7월) 및 보완·개선(계속)
- 상시 모니터링(계속) 및 임직원·위탁업자 정보보호 교육(매월)

② **(비식별 신용정보 안전성 확보 및 이용 지원)** 충분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한 이후 활용 확대

- ① **(시범 테스트)**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비식별 수행 절차 및 비식별 정보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비식별 시범 테스트**를 수행
- ② **(규정 마련)** 비식별 정보 생성·관리·활용 등 비식별화 과정 및 이용기준 등에 대한 **내부 관리 규정**을 마련
- ③ **(비식별 정보 활용)** 비식별 정보와 다양한 정보를 결합·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정보 관리·분석 경험을 금융업계에 확산



- 추진시기
 - 법·제도 추진과 연계하여 시행(~'16년12월)

③ **(안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 빅데이터 업무의 안전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자문기구와 금융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운영

- ① **(자문기구 운영)** 데이터 분석 결과 검증 및 비식별화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자문기구* 구성·운영
 - * 학계, 금융업계,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정기·수시 자문
- ② **(지속적 의견 수렴)** 분석관련 업무 현안* 등에 대한 금융업계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업계 업무 협의체 구성·운영
 - * 추가 분석수요 발굴, 금융사기모델 개발·확산 등

- 추진시기
 - 자문기구 및 금융업계 협의체 구성·운영(~'16년7월)

4. 향후 추진 계획

- '16년 하반기부터 분석이 완료되는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분석 보고서를 발표·제공
 - 이와 함께, 자문기구·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기존 과제의 분석내용 및 수준 등을 개선하고, 신규 분석과제도 지속 발굴
- 분석결과는 분석보고서의 종류, 활용 용도 등에 따라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
 - ①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공개 가능한 분석 보고서는 신용정보원 또는 보험다보여 등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기 및 수시 제공
 - ② **(전용 홈페이지)** 세부 분석 보고서 및 통계표를 관련 기관(은행, 보험, 핀테크기업 등)만 접속 가능한 전용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③ **(전용 조회시스템·파일)** 해당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만 접속 가능한 전용의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제공 하거나 파일형태로 제공
 - ④ **(기타)** 분석 결과를 세미나, 업무 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

<분석결과 제공 방법>

구 분	추진 과제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별도전용 홈페이지	전용 조회시스템·파일	세미나 업무설명회 등
신규 정보의 집중·확대 다른 통합분석 제공	업권간 연계분석으로 리스크 평가모형 정교화	○	○		○
	통합 실손계약정보의 다양한 활용	○	○		○
	본인 보험보장내역 한눈에 확인, “보험다보여”	○			
기존 정보의 분석 및 활용 강화	보험정보 통합으로 “보험사기다잡아”	○	○	○	
	금융소비자 특성 분석으로 신금융서비스 활성화	○	○		○
	DSR 구축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지원			○	
	기술, 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기반의 대출 활성화	○	○		○

1 신용정보 집중 확대에 따른 통합분석 제공

(1) 업권간 연계분석으로 리스크 평가모형 정교화

- (중전) 기존 은행·보험 정보는 업권별로 분산 관리되어, 금융 소비자의 종합적인 신용거래 정보에 대한 연계분석 및 활용이 곤란
- (추진내용) 대출과 보험 가입·해지간 연관관계 분석, 보험 가입/미가입자의 연체 특성 분석 등 은행·보험 정보를 연계한 융합분석



□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의 종합적인 신용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평가 모형 정교화 및 합리적 대출금리 책정
- 업권간 연계 분석을 통해 금융사의 대출 및 보험 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 고도화
- 신용거래특성을 반영한 보험사기예측 모형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해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

< 종합적 신용거래 정보 활용 적용례 >

◇ 보장성·저축성 보험을 여러 건 보유한 A씨는 신용대출시, 보험가입 사실을 대출기관에 통보하고 현행보다 낮은 대출이율을 적용받음

➡ A씨의 상환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감안되어 대출이율이 하향 적용됨

* 불의의 사고에 의한 노동 능력 상실 시 보험 보장이 충분한 대출자는 보험미가입자에 비해 상환 능력 감소가 낮으며, 저축성 보험 보유 현황은 대출자의 자산 또는 소득 수준에 대한 추가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됨

(2) 통합 실손계약정보의 다양한 활용

- (중전) 그 간 실손계약정보는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에 분산되어, 중복가입 사전 확인에만 제한적으로 활용
 - 현재 3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소비자권익 보호 및 정책당국에 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통계가 필요한 실정
- (추진내용) 1단계 실손계약자료를 통합하였고 2단계 실손지급 자료도 추가 집중하여, 정책 및 산업에 필요한 통계 산출제공



- (기대효과) 보험사에게는 생·손보사 및 공제 업권별 선호도, 주요 가입 연령대 등 판매전략 수립에 필요한 분석통계 제공
- 정책당국 및 소비자에는 연령·계층별 가입률 및 가입자 특성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하여 정책수립 지원

< 실손의료보험 가입 통계 분석 적용례 >

◇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분석통계를 통해 50대 후반이후 보험가입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파악하고, 해당 연령대 대상의 보험상품 판매 강화 전략을 수립

➡ 보험사, 공제기관 등은 전체 연령별·성별 실손의료보험 가입평균과 자사 정보의 비교분석 가능

[3] 본인 보험보장내역 한눈에 확인, '가칭보험다보여'

□ (중전) 보험협회를 통해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계약내역 확인이 가능하나,

○ 실시간 인터넷 조회가 어렵고 제공내역이 상품명 등으로 한정되어 세부 보장내역 등 실효성 있는 가입현황 제공이 안되는 상황

※ 가입보험의 보장내역을 확인하려면 각 보험사에 방문·전화로 문의해야함

□ (추진내용) 소비자는 본인인증 후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을 원클릭으로 확인 가능한 '보험다보여' 서비스 추진

○ 보험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보장내역에 대한 분석자료를 유사연령 평균 보장금액 등 비교지표와 함께 제공

○ 보험정보 집종의 확대에 따라 보장성보험에서 연금·저축성 보험 등으로 단계적 서비스 확대 예정

※ 향후, 상대적으로 부족한 보장범위에 대해서는 '보험다보여'와 연계하여 보험 신규 가입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검토

* 생·손보협회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www.e-insmarket.or.kr)

□ 기대효과

○ (소비자 편의 제고) 보험금청구권 발생시 보험증권 등의 확인 없이 원클릭으로 본인 보장 여부 쉽게 확인

○ (소비자 선택형 상품개발 촉진) 보장내역 확인을 통해 확인된 부족한 보장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개발 촉진

○ (고령화 대비 지원) 보험가입자가 본인 연금 및 의료비보장 등에 대해 자발적 노후 보장 설계 지원

< '보험다보여' 서비스 적용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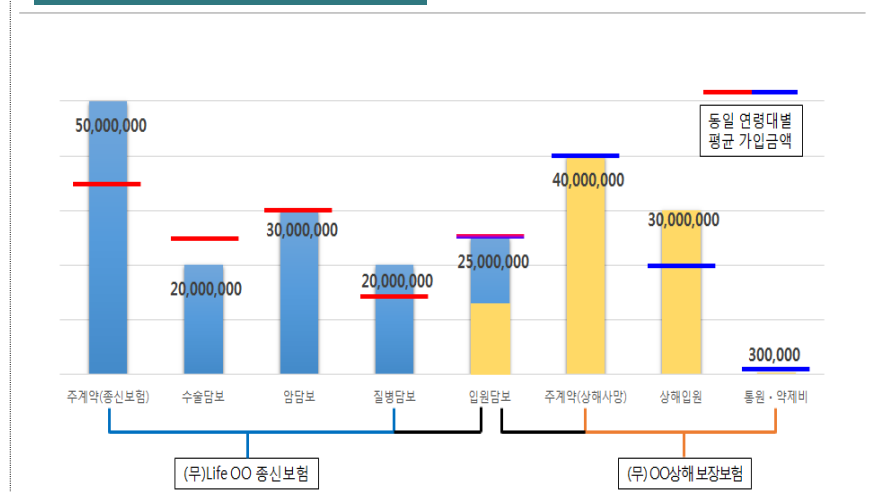
◇ 40대 가장 A씨는, 가입한지 오래되어 잊고있었던 보험이 떠올라 '보험다보여'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보험내역과 40대 남성의 평균적인 보장수준을 조회함

[시스템 운영 화면 가상 예시]

회사명	상품명	계약일자	계약자 해당여부	피보험자 해당여부	수익자 해당여부	계약상태
A생명	(무)Life OO 종신보험	2014.3.3	Y	Y	Y	정상유지
B손보	(무) OO 상해보험	2015.4.1	Y	Y	N	정상유지

동일연령대별 평균 가입금액 대비 나의 가입금액 조회

클릭시 동일 연령대 평균 가입금액·본인 가입금액 표시



- ▷ 가입한 보험종류와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보장을 파악할 수 있음
- ▷ A씨의 경우, 입원담보 가입금액은 2가지 보험상품 합산 2천5백만원이며, 이는 동일 연령대 평균 가입금액과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상세내역을 원클릭으로 간단히 조회하고, 부족한 보장내역을 스스로 확인하여 안정적인 위험대비 보장설계를 할 수 있음

[4] 보험정보 통합으로 '보험사기다잡아'

*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금융위 보도자료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최 (2016.4.6)” 참고)

□ (중전) 각 업권(생명·손해보험 및 공제기관*)의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보험사기에 효과적인 대응 미흡

* 공제기관 :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 생·손보, 공제 권역을 넘나드는 보험사기 대처에 어려움

○ 보험사가 운영하는 FDS(보험사기예방시스템)은 자사 보유정보만으로 분석하여 보험사기 예방에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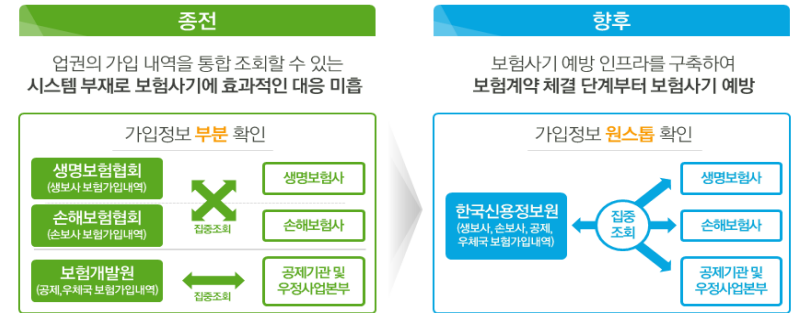
□ (추진내용)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 통계적 분석 및 비정형 분석 시스템 등 보험사기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험계약 체결 단계부터 보험사기 예방

① (보험가입조회 시스템 개선) 보험사·공제 보험가입 정보 통합 조회를 통해 입원급여·고액사망급여 중복 가입현황 등 이상 징후를 청약단계부터 감지

< '보험사기다잡아' 구축 적용례 -1 >

◇ A씨는 생명·손해보험사 여러곳에 1일 입원시 총 35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보험을 가입하고 **추가가입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우체국 등 공제사에 입원보험금 보험을 **추가로 가입**

➡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통합시스템 운영시 우체국 등 공제사도 생·손보 업권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보험사기 유의자의 보험가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② (통계적분석 시스템 구축) 보험사기예방에 필요한 기술(記述) 및 예측 통계 분석의 고도화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

- 기술통계분석 : 보험금청구시 해당 병원 및 정비공장의 과잉 진료 및 허위청구 여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통계 제공

- 예측통계분석 : 유형별 보험사기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보험사기 유의자의 보험사기 기능성(예측통계)을 점수화하여 제공

< '보험사기다잡아' 구축 적용례 -2 >

◇ 오토바이 정비업체 대표인 A씨 등 30명은 사고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수리나 교환이 필요하지 않은 부속품을 수리비 견적서에 포함시켜 수리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렌트비를 수령하는 등 6.3억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

※ 출처 : 금감원 보도자료 '201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원 역대 최고' (2016.3.23.)

➡ 보험사는 통계적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사한 사고에 대한 A씨의 정비업체의 과거 수리비(보험금) 청구내역이 다른 정비업체의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파악할 수 있어 정비업체의 보험사기를 보험금 지급전에 인지하여 조치할 수 있음

③ (비정형분석 시스템 구축) 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 관계자간 상호연관성을 도식화하는 보험관계자 연계분석 시스템 구축

- 단순 조회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공모형 보험사기를 적발·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비정형 분석 시스템 >



- (기대효과) 보험계약 인수시 다양한 리스크 정보를 이용한 심사를 통해 보험사기자들의 보험가입을 차단하여

-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 보험금을 방지하여 보험료 인상요인 차단 등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 회사가 보험사기에측모델 개별 구축시 발생하는 비용 절감
- 보험금 청구시 즉시지급건과 조사대상건의 빠른 구분을 통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신속한 보험금 지급 가능

< '보험사기다잡아' 구축 적용례 -3 >

- ◇ A씨 등 10명은 동일한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10명이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바꾸가며 보험사기를 통해 수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
- ➡ 비정형분석 시스템을 통해 B씨와 가입자 10명의 공모형 보험사기를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2 기존 신용정보의 분석 및 활용 강화

(1) 금융소비자 특성 분석으로 新금융서비스 활성화 지원

- (중전) 금융회사의 개인대출 상품의 경우,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율, 한도 등이 일괄적으로 적용
 - CB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신용 기준을 적용
 - 소액 관련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신용분석 정보의 부족으로 핀테크 기업 등의 신 금융상품 개발 한계
- (추진내용)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소액 개인신용 관련 통계 및 분석 정보 제공
 - 대출·연체 종류별 추이, 소액 연체자 특성, 연체 및 파산 집단



- (기대효과) 대출자 유형별 대출·연체 특성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고객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기에 용이
 - 소액 대출·연체 특성을 반영한 신용등급 정교화를 통해 상환자 특성에 따른 적정 대출이율 제시 가능
 -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지원하고,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신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소액 관련 개인신용 특성 분석 적용례 >

◇ 직장인 A씨는 과거 이직 과정에서 1년 정도 공백이 발생하여 은행 및 카드사에서 1백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대출 원금 및 이자를 여러 번 연체**

- 이후 다시 취업에 성공하여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하였으나, CB사 신용등급 평가체계에 따른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새로이 신용대출을 받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이율을 적용 받음

➔ 소액 관련 개인신용 특성을 분석하여 기존 **신용등급 세분화**를 지원하고 **상환자 특성에 맞는 적정 대출 이율**을 제시

※ 예) 신용등급 하락 이후, 대출자가 성실 상환자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낮은 대출 이율을, 불량 상환자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높은 대출 이율을 제시

➔ 핀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기여



◇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한 소액대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 B사는 신용정보원의 각종 통계자료 및 분석정보를 활용함

- 개인 신용평가지 기준에 이용되는 신용등급 외에 다양한 비재무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여신심사시 활용하며 이러한 **평가지표 중 하나로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분석정보 등을 활용**

◇ A은행은 **대출종류별·업권별 특성 분석자료**를 통해 20대 중반이 신용등급은 낮지만 실제 연체발생률은 동일 신용등급군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파악

- 20대 중반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업 전략에 해당정보를 반영하여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 및 대출사업 리스크 감소

➔ **대출상품 특성의 세밀한 파악**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사업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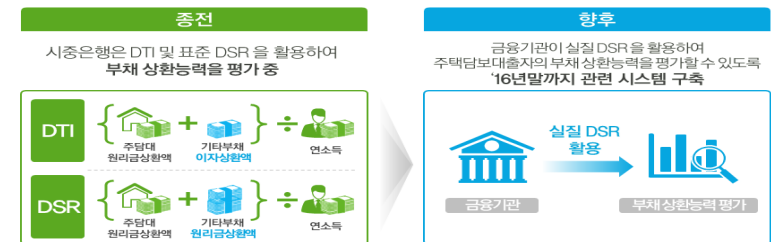
(2) DSR 구축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지원

□ (중전) 시중은행은 DTI* 및 표준 DSR**을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자의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 중

* Debt to Income : 대출자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지표
** Debt Service Ratio : DTI의 금융부채 범위를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까지 확대 다만, 원리금 상환 규모는 **표준 대출자로 가정하여 추정**

□ (추진내용) 금융기관이 실질 DSR*을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자의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16년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

* 실질 DSR : 실제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정보를 신용정보원으로 집중하여 산출



□ (기대효과)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

- 대출자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
- 금융회사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하여 **대출자의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

< DSR 산출 · 적용례 >

◇ 만기 5년의 신용대출 0.5억원(금리 5%)을 쓰고 있는 소득 3,000만원의 A씨가 신규로 만기 20년(비거치식·분할상환)의 주택담보대출 2.1억원(금리 3%)을 받는 경우

➔ 신용대출에 따른 A씨의 원리금을 감안한 DSR은 88.3%로서 은행 판단 적정 DSR(예: 80%)을 초과하므로, 은행에서 대출 실행 후 A씨의 신용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 만약 추후 A씨의 신용상태가 변동되어 향후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A씨와의 상담 등을 통해 **예방 조치 등 모색**

[3] 기술·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기반의 대출 활성화

□ (중전) 과거 실적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에 기반한 여신 관행으로 우수 기술기업의 미래 가치에 기반한 자금 지원이 미흡

- '14.7월 이후 기술금융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 금융 정착을 위한 기업 기술력과 금융(여신) 정보 간의 연계 분석 및 기술금융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무

※ 기술신용정보(기술신용평가결과, 기술금융 여신현황)의 집중 및 지속적인 시 계열 분석을 통한 기술금융 정착 유도가 필요

□ (추진내용) 일반대출·기술신용대출 기업간 비교분석, 대출실행금액의 투입·성과 분석 등 기술신용·신용정보를 연계한 융합 분석 실시

- 재무·비재무적 성과 비교분석, 기술금융 지원 기업의 기술력 향상효과 측정, 산업별 기술금융 효율 분석 등

□ (기대효과) 기술금융 효과 분석 고도화를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시 기술력을 반영한 대출 관행 정착을 지원

- 우수 기술기업의 자금 확보를 원활히 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 하고,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효율적 자원 배분이 가능

- 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에서 벗어난 新 금융기법으로 은행 경쟁력 강화

< 기술금융 현황 및 효과 분석 적용례 >

◇ A은행은 신용정보원의 기술신용대출 관련 각종 통계 분석자료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평가모형 내 기술력 평가 지표를 내재화

- A은행의 기술신용평가 및 대출 분석자료, 기술금융 효과 분석 자료 등을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한 기반 데이터로 활용

◇ B은행은 기술금융 효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 여신 포트폴리오를 수익성 및 안정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재편하고, 신규 기업을 중점 발굴

- ➔ 기술력을 반영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로 은행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활성화

3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1) 최고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운영

□ 금융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관리적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 하고 외부 위협 및 신용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

- ① (3중 보안관계) 금융보안원과 협력하여 3중의 보안관계* 및 사이버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개선

* 금융보안원, 보안회사, 통신회사 등이 24시간 365일 관련 시스템 보안관계

- ② (별도 분석DB)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신용정보망에 개별 신용정보(일반보험기술) DB와는 별도로 빅데이터 분석용 DB 구축

* 인터넷과 물리적,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인터넷을 통한 해킹 원천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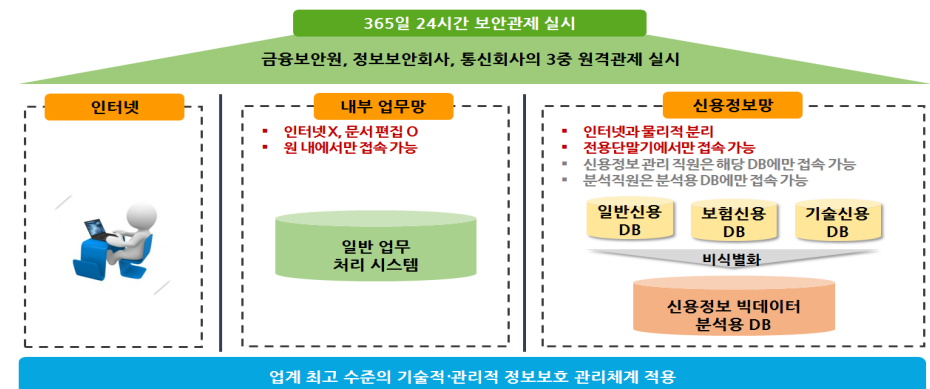
- ③ (분석 모니터링) 모든 분석업무 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출력과 저장이 불가능한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만 분석 수행

*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없이 입력장치(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만으로 구성

- ④ (정기적 진단·교육) 빅데이터 관련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보완·개선, 정보보호 교육** 실시

* 관련 법규(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준수 여부 진단(7월), IT시스템 보안 점검(매월) 및 종합 보안점검(연2회)

** 임직원 및 위탁업자 등 정보보호 소양 및 전문교육(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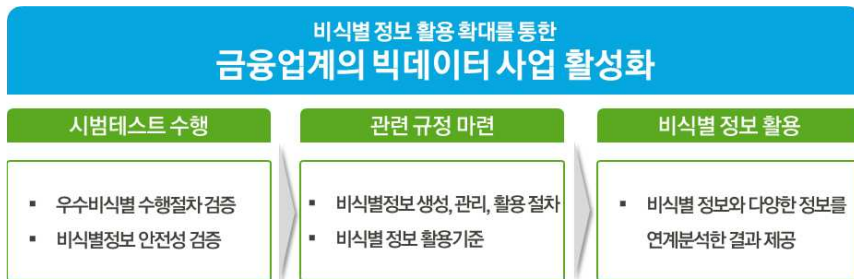


[2] 비식별 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 지원

- 법령·지침*에 따른 적절한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충분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한 이후 비식별 정보의 활용 확대

* 향후 제·개정되는 관련 법령·지침·가이드 등을 반영 예정

- ① **(시험 테스트)**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비식별 수행 절차 및 비식별 정보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비식별 시험 테스트를 수행**
- ② **(규정 마련)** 비식별 정보 생성·관리·활용 등 비식별화 과정 및 이용기준 등에 대한 **내부 관리 규정을 마련**
- ③ **(비식별 정보 활용)** 비식별 정보와 다양한 정보를 결합·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정보 관리·분석 경험을 금융업계에 확산



[3] 안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

- 빅데이터 관련 업무의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고, 관련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

- ① **(자문기구 운영)** 데이터 분석 결과 검증 및 비식별화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자문기구* 구성·운영
- ② **(지속적 의견 수렴)** 분석관련 업무 현안* 등에 대한 **금융업계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업계 업무 협의체 구성·운영

* 학계, 금융업계,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정기·수시 자문

* 추가 분석수요 발굴, 금융사기모델 개발·확산 등

4 분석결과 제공 방법

- ①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공개 가능한 분석 보고서는 신용정보원 또는 보험다보여 등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기 및 수시 제공
*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http://www.kcredit.or.kr>
- ② **(전용 홈페이지)** 세부 분석 보고서 및 통계표를 관련 기관(은행, 보험, 핀테크기업 등)만 접속 가능한 전용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기술·신용 융합분석의 경우 TDB(<http://www.tdb.or.kr>)를 통해 제공
- ③ **(전용 조회시스템·파일)** 해당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만 접속 가능한 전용의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제공 하거나 파일형태로 제공
- ④ **(기타)** 분석 결과를 세미나, 업무 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

<분석결과 제공 방법>

구 분	추진 과제	제공 방법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메뉴	별도전용 홈페이지 구축	전용 조회시스템· 파일 제공	세미나, 업무설명회 등
신규 정보의 집중·확대에 따른 통합분석 제공	업권간 연계분석으로 리스크 평가모형 정교화	○	○		○
	통합 실손계약정보의 다양한 활용	○	○		○
	본인 보험보장내역 한눈에 확인, (가칭)“보험다보여”	○			
기존 정보의 분석 및 활용 강화	보험정보 통합으로 “보험사기다잡아”	○	○	○	
	금융소비자 특성 분석으로 新금융서비스 활성화	○	○		○
	DSR 구축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지원			○	
	기술, 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기반의 대출 활성화	○	○		○

5 추진 일정

구 분	추진 과제	세부 추진 내용 및 일정		
		'16년		'17년 ~
		5~7월	8~12월	
신용정보의 집중 확대에 따른 통합분석 제공	업권간 연계분석으로 리스크 평가모형 정교화	대출과 보험 가입·해지와의 연관관계 및 보험가입자의 대출성향 분석	방카슈랑스 가입 특성 분석	기존 과제에 대한 심화 분석
	통합 실손계약정보의 다양한 활용	실손의료보험 가입통계 산출	다양화, 세분화된 통계 제공	통계자료의 정기적 제공
	본인 보험보장내역 한눈에 확인, (가칭)“보험다보여”		보장내용 일괄조회 시스템 구축	보장내역 일괄조회 시스템 운영개시 (’17년 상반기)
	보험정보 통합으로 “보험사기다잡아”		보험가입내역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통계분석(’17년), 비정형분석(’18년) 시스템 구축
기존 신용정보의 분석 및 활용 강화	금융소비자 특성 분석으로 新금융서비스 활성화	대출·연체 종류별 추이 및 소액 연체자 특성 분석	연체 및 파산집단의 대출행태 분석	기존 과제에 대한 심화 분석
	DSR 구축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지원	DSR 관련 정보 구축(안)마련 및 금융기관 협의	전산개발 등 시스템 구축, 테스트	표준 및 실질 DSR 산출 관련 정보 제공
	기술, 신용 융합분석으로 기술력 기반의 대출 활성화		기술신용대출 현황분석 및 기술·신용정보 연계분석	기술금융 투입에 따른 기술사업화 촉진효과 심화 분석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최고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운영	통합컴플라이언스 진단	점검결과 보완·개선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보호 교육		
	비식별 신용정보 안전성 확보 및 이용 지원		비식별정보 안전성 검증 시범 테스트 및 관련 규정 마련 (※법제도 추진과 연계)	비식별정보 관리·분석 경험 확산
	안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	자문기구 및 협의체 구성·운영		